



제3기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
6개월 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필사 완수

알립니다
다음주 신문(7/10)은 휴간
입니다.

성경 필사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26명의 장학생들

기독일보가 주최하고 크리스천다음세대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가 주관한 제3기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이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6개월간 성경 필사에 참여한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와 곽윤영 집사(TV 기독일보 진행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엘리야 김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의 대표기도, 고승희 목사의 설교, 폴 킴 목사(기독일보 이사장), 김재성 박사(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의 격려사, 장학생 및 후원자의 간증, 장학금과 특별상 수여, 찬양 인도 이요한 목사(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축도 진건호 목사(남가주부흥사협의회 회장)의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교



제3기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이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계 및 후원자들이 함께 참석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되새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사역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고승희 목사는 '말씀의 능력'(시편 19편 7~11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창세기 1장은 하나

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며, 민수기 14장에서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며 "히브리서 11장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안다고 증언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변화의 능력이 있

다"고 했다.

이어 요한복음 1장을 인용하며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성령의 겹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맵 기자 → 2면에서 계속

러빙워십, 소향·션 초청 공연... 문화사역으로 교회와 세상을 잇다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은 그동안 제이어스와의 연합 콘서트를 시작으로, 주영훈과 '새롭게 하소서' 팀, 조혜련·브라이언 킴과의 연합 공연을 통해 남가주를 중심으로 문화선교의 무대를 넓혀왔다.

이민 1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령화와 다음 세대 부재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오늘, 러빙워십은 끊어진 세대 간의 연결 고리를 잇고, 세상과의 접점을 잃은 복음을 삶의 자리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문화선교라는 방식으로 택했다.



러빙워십 스테프 단체사진. ©러빙워십

이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과 2일, LA 다운타운 노보 극장에서 '디

스 이즈 루아흐'(This Is RUACH - The Voice)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연다. 공연을 앞두고 러빙워십 스테프들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콘서트 주제를 정한 이유는?
(김낙영 간사)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믿음과 예배의 회복,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제인 리 간사) 지금까지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늘 위기가

자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과 스테프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을 경험해 왔습니다.

일반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이유중 선교사) 교회와 교파를 넘어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공연장을 택했고, 무대와 음향의 완성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주디 한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K-Urban Like CSLB # 854389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비이바스 USA 이사장
(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현)재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목회 멘토링, “복음은 경계를 넘어 찾아온 사랑”

김영길 목사 초청 목회 멘토링 세미나 개최, 월드미션대학교 기독일보 공동 주최

월드미션대학교와 기독일보가 공동 주최한 김영길 목사 초청 멘토링 세미나가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영길 목사는 35년 목회 여정을 바탕으로 ‘설교의 세가지 요소-지정의(知情意)’, ‘목회자의 자기분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다루는 법’과 ‘주도적 목회’를 주제로 총 4번의 강의를 이끌었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목사

김 목사는 자신의 목회 초기, “정말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13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다. 목회를 시작한 뒤에도 후임자를 찾은 뒤 목회의 자리를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다 한 지체의 간절한 요청으로, 지체의 아버지를 방문하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지체의 아버지를 찾아가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는 김영길 목사입니다.”라고 인사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본체만체.

“보통 분이 아니셨다. 제가 하는 이야기마다 핏퐁처럼 받아치셨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남이 나에게 죄를 짓게도 안하고 나도 남에게 죄를 안 지어요.’,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싫소. 기독교는 아편이요. 나는 막스 레닌 주의자, 공산주의자요.’, “제 평생에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셨다.”

하나님, 제가 창피 당하니 좋으세요?

전도의 밑천이 동이난 김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을 신고 나오는데, 해가 작열하는 하늘에 대고 말했다. ‘하나님, 좋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시니 좋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트루스트와 턴으로 이루어진다. 주일예배 때 그 분이 찾아오셨다.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매 주일 같은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라지셨다. 다섯번째 주일, 그분의 입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세상에 없는 죄인이군요”라는 고백이 나왔다. 이 사건을 통해 김 목사는 깨



월드미션대학교와 기독일보가 공동 주최한 '김영길 목사 초청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 기독일보

달았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격도 능력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는 이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붙들었다.

처음 3분 안에 성도를 사로잡아야

이어 설교의 세가지 요소에 대해 나누었다. 그는 설교에서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 전달에서 끝나면 팔만 잘하는 것이고, ‘의’의 단계에까지 도달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설교는 성도의 삶을 변화와 결단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는 설교의 지적인 요소를 통해, “성도들을 성경의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하며, 본문 속 인물이 된 것처럼 몰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교는 흥미롭고 정중과 연관되어야 하며, 접근이 새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 3분 안에 성도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 설교를 들을 성도가 없다”며 설교의 도입과 구성, 논리성, 청중 이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애정 결핍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결핍이라고 분석했다.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접촉점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두 번째 강의에서 김 목사는 목회자에게 필수적 요소로 ‘자기분화’를 강조했다. 그는 “35년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분화하다 끝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

며 “목회는 목회자 자신이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아를 세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가족 치료 연구가 메레이 보웬의 개념을 인용해, “자기분화란 주변의 정서적 환경이나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과 감정의 분화, 목회자의 필수 자질

“이성적 사고와 감정을 분화해야 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목회자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불안이라고 했다. “목회 현장에는 성도와 의 관계, 갈등, 기대, 비판 등 다양한 정서적 압력이 존재한다. 자기분화가 잘 된 목회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자기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인의 감정과 반응에 쉽게 흔들리고 관계의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들게 된다.”

김 목사는 “자기분화가 단절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는 성숙한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목회자가 성숙한 관계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할 때와 혼자 있을 때를 구별하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필요하다.”

김 목사는 창세기의 ‘이삭’을 통해 신앙의 분화를 설명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때는 날 큰 잔치를 베푼 사건을 ‘성대한 이유식’(離乳式)으로 표현하며, 신앙의 성장에는 부모의 신앙에서 자신

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버지의 자리에 섰던 사건은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며,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의 결실을 얻은 사건을 통해, 이삭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로날드 리처드슨을 인용해, “목회자에게 인간관계는 목회의 성공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정의했다.

“목회자는 자신의 원가족, 곧 자신이 자라난 가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패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원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자랐는지가 목회자의 사고와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서적 반발과 관계의 어려움이 사실은 목회자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굽이 압복강가에서 씨름한 사건에 비유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이 해결될 때, 목회에도 균형이 생긴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다루었다. 그는 먼저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정서적 애착을 가진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을 “어떤 위협에 대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불쾌한 반응”으로 설명했다. “또한 정서적 반발은 자신의 정

서적 취약성을 감추기 위한 시도이다.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순응, 반항, 권력투쟁, 거리두기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

교회 안에서 충돌을 다루기 위해 목회자가 과민한 반응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고 권면하며, “다른 사람의 불안전성을 보며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충돌이 생겼을 때 무조건 즉각 개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공동체 안에는 일정 부분 자가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에 자체적인 회복 능력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거나 지속될 때는 목회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게 개입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경고가 필요하며,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원리에 따라 권면과 증인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교회 안의 갈등을 방지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모두 위험하므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목회 중 겪은 고소 사건을 통해 교회 내 갈등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나누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고소한 성도의 집을 찾아갔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수십번 권면했다. 성도는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험을 통해 교회내 충돌이 일어날 때 목회자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적 판단이나 감정적 대응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려야 한다.”

복음은 선을 넘어 오는 것

그는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은 선을 넘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벽을 넘어 상대에게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넘어오신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복음의 본질은 경계를 넘어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디 한 기자

세리토스선교교회 (CMC)

임직감사예배

2026년 7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안수집사임직 : 김상욱 최의동

안수집사취임 : 김영훈 김종성 박찬수 이준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일꾼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교회와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리토스선교교회 교우일동 드림

세리토스선교교회

CERRITO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방상용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562-402-2919

cmcmmissionchurch@gmail.com

www.cmchome.org

교회 문턱 어떻게 낮출 것인가...그 해답은 문화선교

→ 1면 기사 <러빙워십>에 이어서
출연진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정윤경 간사) 이번 공연은 무엇보다 콘서트의 주제인 성령님의 임재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분 모두 무대 위의 공연을 넘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콘서트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강승형 간사) 각 출연자의 찬양 공연과 간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별 순서로는 남가주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신앙·삶에 관한 토크콘서트가 준비돼 있어, 설교가 아닌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민자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출연진이 있습니까?

(장준환 간사) 네. 선님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자라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만큼 이민자의 삶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선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통한 위로가 전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가 이민교회의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십니까?

(이용주 선교사) 오늘날 미주 한



러빙 워십과 '제이어스'(J-US)의 연합 콘서트 '예수야'. ©기독교일보

기성세대는 다음세대가 예배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다음세대는 믿음의 선배들이 거처온 고난과 헌신을 깨닫는 자리

인 이민교회가 노령화와 다음 세대의 탈교회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러빙워십도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러빙워십은 문화사역이 3대가 함께 예배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이어스와의 연합 콘서트에서 할머니·할아버지와 손자·손녀가 함께 찬양하고, '사랑해 엄마' 연극을 보며 2세 자녀들이 부모와 감동을 나누고, 비와이의 무대에 어르신들이 함께 호응하는 장면처럼 세대를 하나로 묶는 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에게는 다음 세대가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지를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과 헌신을 거쳐 오늘의 신앙을 이어왔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러빙워십은 이번 콘서트도 남가주 교회들과 함께 모든 세대를 잇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러빙워십이 생각하는 문화사역이란 무엇인가요?

(김낙영 간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비교적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러빙워십의 문화사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사역은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과 만나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찬양과 음악, 공연과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러빙워십은 어떤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바라나요?

(켈리 리 간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되며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자리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가게 하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집과 같은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러빙워십의 재키 정 간사님의 별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키 정 간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조애나 서 간사) 재키 간사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했고, 사

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재키 간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예배는 무대가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키 간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키 간사님은 러빙워십에서 15년 동안 함께 사역하며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았고,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특히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재키 간사님은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시기 하루 전, 꿈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제 괜찮으니 울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재키 간사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신실함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네시모선교회 ‘청소년 범죄 예방 세미나’ 성료

오네시모선교회(대표 데릭 임 목사)가 6월 27일(토) ‘청소년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학부모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해 온 베테랑 교육자인 조애나 정(Joanna Chung, M.Ed.) 선생이 강사로 나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마주하는 유혹과 위험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정 선생은 자신의 삶을 복음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청소년들이 예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워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감 생활을 했던 형제의 간증이 진행돼 깊은 울림을 전했다.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삶이 무너졌던 과정과 수감 생활을 통해 겪었던 아픔, 그리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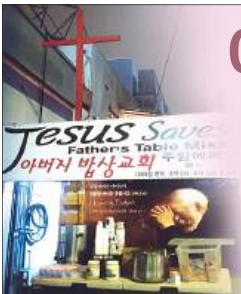
의 크신 은혜로 회복된 과정을 진솔하게 나눴다.

오네시모선교회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 12일(주일) 오후 선교사역과 차세대 예방사역을 위한 ‘후원기금 마련 만찬(Benefit Banquet)’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문의: 오네시모선교회 홈페이지, 전화 (714) 739-9100



오네시모 선교회가 청소년 범죄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오네시모선교회



아버지 밧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714-851-8035

강신욱 M.D / 김남주 N.P / 김민성 M.D / 김영래 M.D / 김인자 M.D / 김진세 M.D / 김태원 M.D / 김학준 M.D
대니얼 김 M.D / 리사 김 M.D / 박수영 M.D / 박윤석 M.D / 성동진 M.D / 손동수 M.D / 송홍우 D.O / 신예용 D.O
안우성 M.D / 양진홍 M.D / 윤은주 M.D / 이광혁 M.D / 이영직 M.D / 이용태 M.D / 이익준 M.D / 이헌녕 M.D
이현주 M.D / 임대순 M.D / 임승하 M.D / 정만길 M.D / 제인 공 M.D / 조아라 M.D / 조이스 리 M.D
찰스 김 M.D / 프랭크 최 D.O / 허준 M.D / 헬렌 강 M.D / 황인용 M.D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이웃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성경 난도질하는 자유주의, 교회 근간 흔들어”

**감신대 출신 신학자 A박사
본지와 인터뷰서 비판**

최근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의 한 전공 수업에서 강사가 성경무오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감신대 도서관 ‘읽어 서적’ 비치 논란과 맞물린 이러한 교내 분위기에 대해, 본지는 감신대 출신 신학자인 A박사와 인터뷰를 했다. 익명을 요구한 A박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강사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감신대 신학 교육 현장에 만연한 ‘자유주의신학 편향성’이 빚어낸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성경의 권위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 신앙의 근간 흔들다

성경무오설을 비판하는 시각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A박사는 “성경을 오류투성이로 보는 것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신학의 전형적인 관점”이라며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A박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며 “성경의 권위가 곧 성도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다. 가령 ‘성경은 무오하지 않으며, 과학적 판단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문제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의 본질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과학적 가설이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바꿔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며 “결국 성경이라는 견고한 토대 없이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게 되어, 신앙인의 삶에 영적인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했다.

“역사 비평 따르면 제자 양성 불가”

A박사는 감신대 신학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역사 비평에 매몰된 성서 신학’을 꼽았다. 그는 감리교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역사비평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비판했다.

A박사는 “감리교의 시조인 존 웨슬리는 자신을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라 부르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이 성경의 권위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웨슬리의 신앙적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독일 자유

주의신학의 지대한 영향 아래, 현대 감리교회와 한국 감신대는 웨슬리의 신학마저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왜곡했다”며 “그 결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보다 오직 역사 비평의 도구로만 난도질하는 풍토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학자 케빈 밴후저의 통찰을 빌려 “성경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공존하는데, 역사비평에 빠진 이들은 성경에서 오직 인간적인 요소만을 집요하게 찾아낸다”며 “이러한 시각은 결국 성경을 현대 역사학이나 과학의 잣대로 평가하며, 성경의 수많은 기록을 ‘오류’로 치부하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사비평은 소위 과학적 세계관과 성경이 충돌할 경우 성경을 틀린 것으로 본다. 성경 안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 등은 거짓이 되어 버린다”며 “파생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창조 이야기, 성육신 등도 거짓이 된다. 그러니 구속사도 불가능하다. 아담과 하와도 거짓이니 성경 전체를 잇는 구속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역사비평을 따르다 보면 성경에서 신학적 상징 체계를 찾든지 윤리적 교훈 정도나 얻게 된다. 이처럼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성경 위에 서서 성경을 난



감신대. ©감신대

도질한다”며 “이런 영향을 받으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성숙해지는 게 불가능하다. 성경에 권위가 없는데, 성경을 펼치면 의심부터 드는데 왜 성경 말씀에 복종하겠는가?”라고 했다.

“감신대, 기독교 전통 잘 가르쳐야”

A박사는 감신대 학부와 대학원 시절 역사 비평을 배웠으나, 목회 현장에서 성경의 권위 없이는 교인들을 양육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다시 신학을 기초부터 공부하고자 외국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저의 고백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격과 사역에 집중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A박사는 감신대를 향해 “첫째, 유행신학에 민감한 신학이기에 전통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 즉 깊이가 없다. 둘째, 자유주의신학이 압도적이기에 교단의 개교회에 적용되기가 어렵다.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뛰어난 설교자가 드문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자유주의신학을 하다 보니 나쁜 것에 쉽게 오염된다. 영성이 약하다 보니 학문적 정신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신은 기독교 전통을 잘 가르쳐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신학에 치중해야 하고, 정직한 학문적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러, 구금 중인 한국인 선교사에 ‘기도 강요’ 혐의 추가 움직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되어 수감 중인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가 러시아 검찰로부터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러시아 검찰이 박 선교사가 자신과 함께 지내던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제기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아가 검찰은 이른바 ‘강요된’ 종교 행위가 어린이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을 증언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러시아 당국의 대응이 개신교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당국은 찬송, 기도, 헌금, 설교 등의 활동이 참여자를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세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고 주장한다”



박태연 선교사 ©한국VOM

며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전통적인 러시아 사회에 반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심리적 압력이라고 몰아세운다”고 설명했다.

박 선교사는 현재 3건의 이민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당초 5월로 예정되었던 재판은 7월 초로 연기된 상태다.

박 선교사는 현재 하바롭스크의 외국인 임시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며, 구금 기간은 7월 16일까지 연

장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재판 연기의 배경에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 당국이 박 선교사 사건을 기회 삼아 향후 ‘러시아 복음주의 신앙(오순절) 기독교인 연합’ 등 특정 교단을 겨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7월 개정된 러시아의 ‘극단주의 단체 지정 관련 법안’이 기독교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현숙 폴리 대표는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원에서 극단주의 활동자로 인정되면 해당 단체 전체가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서는 자신의 종교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

하는 것이 극단주의자로 규정되는 기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모든 증언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박 선교사가 지난 33년간 러시아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세월이 그의 진실한 성품을 증명한다”며 “선교사를 해하려는 모든 증언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신뢰를 표했다.

한편, 한국VOM은 박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4월 현숙 폴리 대

표와 에릭 폴리 CEO는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탄원서 사본은 한국 외교부와 유엔(UN)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도 제출했다.

박 선교사는 70세 은퇴를 일주일 앞둔 지난 1월 15일 체포되었으며, 러시아 당국이 부과한 비자 관련 벌금 또한 구금으로 인한 체류기간 위반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 행 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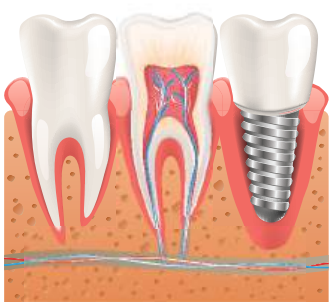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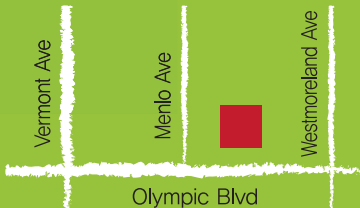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타이틀 스폰서

 **센터메디컬그룹**

TOP7

미스트롯4



스페셜 게스트
'부초같은 인생' 김용임

시청률 신화의 요정들 미국 상륙!

트롯레전드 김용임 출연 확정!

윤윤서

길려원

허찬미

이소나

홍성윤

윤태화

염유리

공연티켓문의
(213)459-6800

LA Live Concert

2026. 8. 22 (토)
2:00PM, 6:30PM | 윌셔이벨극장

\$70~\$450 1층

\$45~\$220 2층

특별협찬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cbb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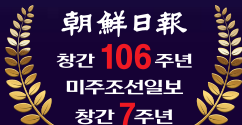
미주조선일보 구독 이벤트

미주조선일보 신규(1년) 구독시
미스트롯4 TOP7 공연 티켓 20% OFF
멕시코크루즈 티켓 20% OFF

(213)459-6800 | chosunLA12@gmail.com
문의: 카톡ID: chosundaily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공연티켓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朝鮮日報
창간 106주년
미주조선일보
창간 7주년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멕시코크루즈



“ 럭셔리 ‘피렌체’ 호에서
최상의 음향과 조명시설을 갖춘
선상크루즈 콘서트를 감상하세요. ”

“ 미스트롯4
TOP7 & 트롯레전드
김용임과 함께하는
선상 콘서트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



압도적
파격가

& 선상콘서트

8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간, 28일 금요일 오전 하선 예정

~~\$899~~
\$599

인사이드

~~\$1079~~
\$699

오션뷰

~~\$1299~~
\$799

발코니

카탈리나섬 투어, 멕시코 엔세나다 - 마리아치 공연 & 민속춤, 프라이빗 선상 공연
1인당/2인1실 기준 - 예약시 완납 Non Refundable, 4박5일 유람선 비용, 모든 세금(포트세, 정부세) 포함

 **여행의 명문 -**
ELITE TOUR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s.com



아노미 상태 아이티에 ‘희망’을 심는 사람

Anomie

아이티 이현우 선교사

정부 기능이 중단된 아이티 무의촌, 무교육 마을에 ‘꿈’을 선교를 위해 준비해 온 삶

세계 최빈국이자 갠단들이 활보하는 무정부 상태의 땅, 아이티(Haiti). 그곳의 새벽은 정적 속에 흐르는 나직한 기도 소리로 열린다. 이현우 선교사(76)의 하루는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에 시작된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그가 사역을 이어갈 지혜와 힘을 얻는 유일한 시간이다.

6살 때부터 수없이 읽어온 말씀이지만, 매일 아침 전해지는 지혜는 늘 새롭다. 이어 새벽 4시가 되면 그는 현지인 케니 목사를 비롯한 단기선교 팀원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아이티의 부흥을 간구한다. “한국 교회 부흥의 동력은 새벽 기

도였습니다. 아이티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나라가 변합니다.”라는 이현우 선교사의 말에는 아이티의 영적 변화를 향한 절실함이 담겨 있다.

노란 버스에 실린 생명줄

예배를 마친 이현우 선교사 오전은 ‘노란 버스’와 함께 시작된다. 팬데믹 기간 중 스쿨버스를 구입해 직접 이동식 진료소로 개조한 이 버스는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아이티 오지 마을을 누비며 주민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의사인 그는 버스 안에 설치된 6개의 침대를 누비며 침술로 환자들을 돌본다. 그의 의료 철학은 확고하다. “내가 치료하는 것이 50%, 우리 팀(브리지원 단기선교팀)의 기도가 50%입니다. 기도가 반이고 치료가 반일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아이티 의료선교의 상징이 된 노란버스 안에서 이현우 선교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유튜브 스포TV 캡처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빵과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제 당연한 ‘사전 진료’가 됐다. 하루 한 끼 조차 먹기 힘든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치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티는 아이티 사람이 바뀌어야

현재 이현우 선교사의 사역은 ‘미래 지도자 양성’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이 선교사는 까락골(Caracol) 센터를 중심으로 신학대학과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티 현지 목회자의 95%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미국의 교수진을 줌(Zoom)으로 연결해 신학을 가르친다.

또한, 아이들이 국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영어 교육을 강조한다. “아이티가 사는 길은 미국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현우 선교사의 신념이다.

자립을 향한 그의 집념은 사업가적인 면모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현지인들이 먹지 않는 해삼을 가공해 수출하는 어업 협동조합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9만 평 부지에 당나귀 농장을 세웠다.

당나귀 폴라젠을 추출하고 고기를 활용하는 이 사업은 외부 원조 없이 아이티 교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려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매년 10개의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이 선교사의 목표다.

또한 지역 교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밤에도 불을 밝히게 함으로써, 교회가 마을의 소통 거점이자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고 있다.

두 누이를 잃은 작은 리빙스턴

이 선교사가 이토록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뿌리는 가난하고 아팠던 어린 시절에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였던 부친 밑에서 자란 그는 배고픈 시절을 보냈고, 두 누이를 각각 영양실조와 기생충 감염으로 잃는 비극을 목격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리빙스턴 선교사의 전기를 읽고 “나도 저렇게 병든 이들을 고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꿈은 평생의 나침반이 됐다.

청년 시절의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7세의 나이로 이미 교회를 개척했다. 1972년 군대에 입대해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혹독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중 시스템을 개선해 2,500명의 군인 신우회를 조직하고, 불신자 장병들을 위해 소 두 마리를 잡아 대접하는 대규모 전도 행사를 열기도 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

2021년 7월, 악명 높은 갠단에게 납치되어 17일간 생사의 기로에 섰

던 순간에도 그의 담대함은 빛났다. 갠단 두목이 복면을 벗고 “우리 엄마처럼 예쁘다”며 아내를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고백한다.

석방 후 한 달 만에 다시 아이티로 돌아온 이 선교사. 이제 한방과 양방 협진이 가능한 종합병원 설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50년생인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아이티가 한국에 2,500달러를 원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내가 태어난 해에 나를 도왔던 나라에 이제는 내가 빛을 갚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이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죽는 것이 선교사의 영광 아닐까요?”

오늘도 노란 버스에 시동을 걸며 아이티의 오지 마을로 향하는 이현우 선교사. 그의 거친 손등 위로 맺힌 땀방울은 절망의 땅 아이티에 내 일이라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고귀한 생명수가 되고 있다.

신정호 선임기자



이현우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배웠다. 미션커널헤이리의 태양광 발전판을 둘러 보고 있다. © 유튜브 스포TV 캡처.

아이티 기적의 요새, '미션 커널 헤이리'

아이티 유일의 외국인 법인법과 원칙으로 건립된 기지

대통령 암살과 갠단의 도심 점령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아이티. 모두가 철수를 고민할 때, 선교 기지 ‘미션커널헤이리(Mission Kernel Haiti)’는 절망의 땅에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현우 선교사가 이끄는 이 재단은 아이티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비즈니스 은행 계좌까지 개설한 공식 법인으로, 까락골 지역 15,750㎡(4,800평) 부지 위에 교육, 의료, 경제적 자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 선교 타운을 구축했다.

현재 센터는 △신학대학과 영어 유치원, 직업학교를 통해 국제적 감

각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것. △20여 개 교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가 없는 마을의 소통 거점으로 만드는 것. △100여 개 무의촌 오지 마을에 버스를 이용한 진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당나귀 농장과 해삼 수출 등을 통해 교회가 스스로 일어서는 경제적 토대를 닦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미션 커널 헤이리’의 비전에 한양방 협진이 가능한 종합병원 설립과 매년 10개의 교회를 자립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하는 것들이 추가됐다.

갠단의 납치 위협 속에서도 자립 선교의 기틀을 닦은 이 선교사의 실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후 시설 보수와 사업 안정을 위한 한인 교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브리지원 소속 단기 선교팀이 이현우 선교사 부부(오른쪽 끝 두 사람)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선영 씨(왼쪽에서 4번째) 제공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 ~ 수천만 대 일”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 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bridgeoneins.com
- Office : 562-222-8877
- Fax : 714-636-0023
- 6767 Katella Ave. Cypress, CA 90630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인도 차티스가르주 기독교인 집단 폭행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차티스가르주에서 현지 전통 종교를 믿는 부족민들이 기독교 예배 모임을 흉기로 습격해 1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6월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가해자들은 폭행 직후 피해자들이 치료를 위해 마을을 비운 사이 빈집을 털어 가축과 재산을 약탈했으며, 경찰은 살인 미수 등의 중범죄 대신 가벼운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경 차티스가르주 수크마 지구 사드라팔 마을에서 기독교인 6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중 40에서 50명에 달하는 마을 주민 무리가 습격했다. 이 지역 기독교인 10가구는 인근 마을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진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피해자 팔로 마다비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예배당 양쪽 출입구를 막아선 뒤 교인들을 한 명씩 밖으로 끌어내 나무 막대기와 도끼, 낫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날 발생한 유혈 사태로 총 13명의 기독교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6명은 피부가 깊게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팔로 마다비 부부의 5세 딸은 막대기에 다리와 등을 맞았고, 임신 중인 팔로 역시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남편 훈가 마다비는 막대한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3.7그램까지 떨어져 혈액 3팩을 수혈받는 응급조치 끝에 지난 6월 12일 퇴원했다. 다른 20대 청년은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대기 중이다. 사태는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한 교인이 8km 떨어진



©pixabay

경찰서에 신고하고 출동한 후에야 진압됐다.

가해 주민들은 폭행 과정에서 교인들이 성경책 사이에 보관하던 현금을 강탈했으며, 성경책을 찢어 바닥에 던진 뒤 밟로 짓밟는 등 노골적인 종교적 적대감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이번 공격의 배경으로 토지 소유권 분쟁을 내세우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훈가 마다비가 조부의 유산을 두고 친척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토지 분쟁은 표면적인 핑계일 뿐, 실제로는 마을에서 기독교인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계획적인 종교 범죄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수년간 공용 우물 사용과 전기 공급을 차단당하고 정부의 식량 배급에서 배제되는 등 심각한 인도종교 갈등과 따돌림을 겪어왔다.

기독교인 10가구가 치료와 안전을 위해 마을을 비운 사이, 가해자들은 6월 1일부터 피해자들의 빈집을 털어 닭과 염소, 곡식, 현금 등을 남김없이 약탈했다. 6월 14일 마을로 돌아온 교인들은 문이 부서지고 내부가 완전히 폐허로 변한 집을 마주해야 했다.

최승연 기자

나이지리아 ‘신성모독’ 사형수 대법원 심리 또 연기… 6년 넘게 수감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6년 넘게 수감 중인 무슬림 음악가 야하야 샤리프-아미누(Yahaya Sharif-Aminu)의 대법원 심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제 법률인권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대법원은 최근 예정됐던 샤리프-아미누 사건 심리를 며칠 앞두고 취소했다. 법원은 새로운 심리 지점에 따라 먼저 접수된 사건들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새로운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노(Kano)주 출신의 수피(Sufi) 무슬림 음악가인 샤리프-아미누는 자신이 직접 작사한 노래 가사를 왓츠앱(WhatsApp)에 게시했다가 일부에서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하면서 2020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심리는 지난 2월 지정된 일정으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시행 중인 신성모독 사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룰 본안 변론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번 심리가 열렸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심리가 됐을 예정이다. 첫 번째 심리는 지난해 9월 열렸으며, 당시 카노주 정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공개 처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수정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의 국제종교자유 담당 수석변호사 손 넬슨(Sean Nelson)은 “야하야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하루하루는 단지 자신의 신앙을 노래 가사로 평화롭게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새로운 심리 일정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상 종교의 자유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리프-아미누는 2020년 3월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 가사를 왓츠앱(WhatsApp)에 공유한 뒤 체포됐다.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성난 군중은 그의 가족 집에 불을 질렀으며, 같은 해 8



야하야 샤리프-아미누. ©ADF 인터내셔널

월 10일 북부 나이지리아의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원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진행한 뒤 교수형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1월 카노주 고등법원은 원심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취소했지만, 동일한 신성모독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도록 명령했다. 해당 법률은 여전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항소법원이 2022년 재심 결정을 유지하자 샤리프-아미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까지 보석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신성모독법이 나이지리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물론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리프-아미누 측 수석 변호인인 국제인권변호사 콜라 알라피니(Kola Alapinni)는 “신성모독법은 오랫동안 소수 무슬림과 기독교인, 기타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그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2023년 4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 샤리프-아미누의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두 번째 결의안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신성모독법 폐지를 주도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5월에는 유엔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 나질라 가네아(Nazila Ghanea), 아이린 칸(Irene Khan)이 공동성명을 통해 샤리프-아미누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신성모독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자세대에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son)
T. (213)386-22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녀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11:30 교육관 1층

주일6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7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8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9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600 분당

주일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3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헌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영어 유치부, 원아동부,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참성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기독교인들에게 무슬림과의
적극적 복음 전도 촉구

영국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이 영국 내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관심을 경계하고, 무슬림 이웃과 동료, 지역사회를 향해 더욱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메시지는 ‘이슬람: 도전, 질문 그리고 복음의 기회(Islam: challenges, questions and gospel opportunities)’라는 제목의 웨비나에서 전달됐다. 해당 웨비나는 영국 사회와 정치 담론 속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와 이슬람의 부상을 다루는 연속 강연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됐다.

연사로는 기독교 변증 단체 솔라스 센터(Solas Centre for Public Christianity)의 대표이자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의 저자인 앤디 배니스터 박사와, 에멘 출신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존 가님이 참여했다. 배니스터 박사는 인구 구조 변화와 무슬림 공동체의 자신감 증가, 그리고 정치·문화 영역에서 무슬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슬람이 영국 공공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영국 내 무슬림 인구가 약 400만 명에 달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이슬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니스터 박사는 “이슬람은 더욱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며 “공공광장과 언론에서 이슬람에 관한 논의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런던 시장인 사디크 칸 등 영향력 있는 무슬림 공직자들의 등장을 이슬람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

배니스터 박사는 영국 사회가 이른바 ‘세속주의의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영적인 질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함께 이슬람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니스터 박사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무슬림 이웃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모스크는 무슬림들에게 기독교인과 어떻게 대화할지 가르치지지만, 교회는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교회가 활용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학적 차이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배니스터 박사는 두 종교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네 가지 핵심 질문을 기준으로 양 종교를 비교하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반면 이슬람은 복종과 순종을 중심에 둔다고 설명했다.

배니스터 박사는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반면 이슬람은 인간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존재이며 더 많은 계명이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를 인정하고 무슬림 친구들이 무엇을 믿는지 이해한 뒤, 그리스도의 독특함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웨비나에서는 이민, 사회 통합, 종교자유 등 현대 정치에서 이슬람이 차지하는 위치도 논의됐다.

배니스터 박사는 서구 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이라며 현대 사회가 사람, 공동체, 기도, 전통 대신 과학, 성, 자아, 그리고 화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라는 사상과 무슬림 개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며 “심지어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우간다 전도자, 전도 중 집단 폭행 당해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우간다 동부 지역에서 길거리 전도 활동을 하던 기독교인이 무슬림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6월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우간다 내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종교적 증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간다 기독교 박해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우간다 동부 마유게 지역에서 다비드 무소바(37)가 아내 엘리자베스 나카토와 함께 전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9명가량의 무슬림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 부부 거리에서 기독교 전도지를 배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저녁 7시경 부부가 숙소인 이콜웨 센터로 걸어가던 중 일어났다. 무슬림 무리는 부부의 앞을 가로막고 해당 지역에 나타난 이유와 기독교 자료를 배포하는 목적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배에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 나카토의 진술에 따르면 괴한들은 둔기로 무소바의 머리를 내리친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로 짓밟고 여러 도구로 폭행했다. 이 구타로 인해 무소바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

가해자들은 무소바가 소지하고 있던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으며 종교적 혐오감을 드러냈고 무소바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 나카토는 자신은 직접적인 공격을 피했지만 남편이 끔찍하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마침 현장 주변을 지나



우간다 국기.

던 사망수수 운반 트럭이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차량 불빛을 발견한 괴한들이 도주했고 무소바는 트럭 탑승자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인근 마유게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피해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조셉 오말라 목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소바가 퇴원하는 대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간다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해 신앙 전파와 타 종교로의 개종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동부 지역을 비롯해 특정 지역에 이슬람 교도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종교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우간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의 길거리 전도나 예배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우간다 기독교 박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소수 종교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현지 치안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엄벌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독일 낙태 비범죄화 논란

독일에서 낙태를 형법상 범죄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 터내셔널(CDI)은 독일 복음주의 연맹(EAD)이 낙태를 규제망에서 완전히 풀어주려는 법적 개편 시도가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 보호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고 6월 25일 보도했다.

CDI는 현재 독일 형법 218조에 따르면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 국가가 승인한 상담을 거치고 3일간의 의무 숙려 기간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연방하원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과 정부 주도 위원회가 2024년 내에 전면적인 독일 낙태 비범죄화를 권고하면서 보수 진영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복음주의 연맹의 라인하르트 쉥크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형법 218조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인권 침해 앞에서 침묵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독일 낙태 비범죄화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 생명 보호를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시키는 법적 접근은 헌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쉥크 사무총장은 독일 낙태 비범죄화 논의를 여성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짚었다. 그는 최근 독일의 유명 산부인과 전문의 맨디 망글러 교수가 방송에서 언급한 마르부르거 분트(독일 의사노조)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해당 조사에서 병원 의사의 거의 절반이 권력 남용을 경험했으며 13퍼센트는 최근 1년 사이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과 취약계층의 존엄성이 반복적으로 유린당하는 시스템적 실패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 혁명과 피임약의 광범위한 보급이 관계의 규범을 재편했지만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 침해와 책임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피임과 임신의 결과를 옳от이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



©pixabay

제로 떠넘기는 사회적 프레임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쉥크 총장은 진정한 여성 인권 존중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남녀가 동등하게 짚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CDI는 독일 기독교계가 현재 진행 중인 인권 논쟁에서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로 태아 생명 보호 문제를 꼽았다고 밝혔다. 쉥크 총장은 인간의 존엄성이 출생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론장에서 태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칭하는 낙태 합법화 프레임에 강하게 비판하며 모든 인간은 발달 단계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생명의 시작부터 고유하고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가 의심되는 태아에 대한 선별적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태아의 생명을 건강이나 기능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진정한 포용 사회를 지향한다면 출생 전 가장 취약한 존재를 배제하는 방식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218조가 임신 중절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한 이유 역시 이 같은 생명 보호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DI는 독일 복음주의 연맹 측이 단순히 형법에만 의존하는 법적 규제로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 임신 상황의 여성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낙태 결정이 극심한 관계적 사회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진정한 생명 보호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캐나다복음주의협의회, 증오범죄법 우려

캐나다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이하 EFC)가 최근 통과된 ‘증오범죄법’(C-9)과 관련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혐오 표현 관련 형법 조항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선의의 종교적 신념’(good faith religious belief) 방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혐오 표현 혐의가 제기될 경우, 더 이상 해당 발언이 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별도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조항은 왕실 승인(Royal Assent)을 받은 뒤 발효될 예정이다.

EFC는 그동안 여러 신앙 단체와 함께 해당 방어 조항의 유지를 촉구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특히 핀란드의 내무장관 출신인 페이비 래세넨(Päivi Räsänen) 기독교민주당 의원은 과거 자신의 SNS 게시물과 수십 년 전 작성한 소책자를 둘러싸고 오랜 법적 분쟁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종교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계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법안 시행 이후에도 고의적인 혐오 조장 혐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방어 수단이 유지된다. 피고인이 발언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거나, 해당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비판이나 논쟁을 위해 인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방어가 가능하다.

EFC는 “실제로 고의적 혐오 조장 혐의



▲캐나다 국기. ©Pixabay

로 기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현행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입증해야 하며,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해당 법률이 적용된 사례 가운데 종교적 신념 방어 조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EFC는 이번 개정이 향후 종교적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FC는 성명을 통해 “종교적 신념 방어 조항의 폐지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이것이 ‘고의적 혐오 조장’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법무장관은 새 법안이 종교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의로 기도하고, 설교하며,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미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예배 8:00am / 주일 2부 예배 9:30am (각 교목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11:20am (각 교목부 예배)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한인성경부 1:30pm / 영어대학부 2pm
수요강제와장남(수) 7:30pm
새벽예배 평일(월-금) 5:30am, (토) 6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예배)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연일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사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모집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Water Leaks & Pipe Clogs

Drain & Sewer Cleaning

Pipe Repair & Replacement

Water Heaters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1a@gmail.com

2026 연세 글로벌포럼 및 정기총회

워싱턴 주 벨뷰 힐튼 호텔 8월 7일(금)-10일(월)

연세대학교 제16대 미주총동문회(총동문회장 석현아)가 오는 2026년 8월 7일(금)부터 10일(월)까지 나흘간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위치한 힐튼 호텔(Hilton Hotel Bellevue, WA)에서 「제16대 미주총동문회 연세 글로벌포럼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세로 하나되는 미주, 연세의 지성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연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우정을 나누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식 회의(상임이사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운동주문학상위원회) 및 킥오프 디너를 시작으로, 미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한 ▲

총장배 US OPEN Golf 대회 ▲시애틀 로컬 투어 ▲지회 네트워킹 및 미주총동문회장 초청 선셋 디너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특히 8월 9일(일) 정기총회 당일에는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동문 스타트업 소개’와 글로벌 트렌드를 짚어보는 ‘Fireside Chat’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저녁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세인의 밤(Gala Night)’ 만찬 행사에서는 ‘Eagles Got Talent’ 무대가 성대하게 펼쳐지며, 마지막 날인 10일 조찬기도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항공사 Delta Air Lines가 공식 항공사 스폰서로 함께하여 동문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8월 2

2026

제16대 연세대 미주총동문회

연세 글로벌포럼 및 정기총회

연세로 하나되는 미주

연세의 지성으로 미래를 열다

DATE: AUG 7 (FRI) - AUG 10 (MON) 2026

VENUE: HILTON HOTEL BELLEVUE, WA

주최: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후원: 연세대 총동문회

총장배 US OPEN Golf 동문 스타트업 소개 로컬 투어

글로벌 네트워킹 FIRESIDE CHAT GALA NIGHT

석현아 총동문회장 (425) 802-7122

김주희 사무총장 (253) 763-3214

정지선 준비위원장 (206) 973-9603

info@yonseiamerica.com

www.yonseiamerica.org

25주2001 - 2026

일부터 15일 사이에 운항하는 시애틀행 항공편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NY4VM]을 입력하면 소정의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석현아 미주총동문회장은 “연세의 지성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동력을 얻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본 포럼 및 총회 참가를 위한 RSVP(참가 신청)는 연세대학교 미주총동문회 공식 홈페이지(<https://yonseiamerica.com/>)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휠체어 및 도움 필요한 이들 위한 열린예배

많은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동의 제약과 예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오는 7월부터 매주 주일 오후 1시, “Worship for Wheelchair and Special Needs(휠체어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예배)”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열린 예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비전 교회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출입할 수 있는 1층 예배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예배는 감동적인 찬양과 성경 중심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번 사역을 준비한 제

임스 구 목사는 병원 채플린으로 사역하며 수많은 환자와 장애인, 장기요양 환자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왔다. 그는 병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며 이번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

제임스 구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동이 어렵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비전 교회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예배를 돕기 원하는 자원봉사자와 예배도우미들의 참여도 환영하고 있다.

휠체어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열린예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동이 어렵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에 초대합니다.

주일 오후 1시, 1층 예배실

예배 안내

Worship for Wheelchair and Special Needs

대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 가족 및 보호자

문의

Global Vision Church 글로벌 비전교회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Tel: 949-667-0264 | Text: 714-393-4595 Fax: 213-714-2110

Email: graceglobalvision@gmail.com, <https://globalvision.church>

한국어 예배: 오전 9시 30분, 글로벌 다국어 예배: 오전 11시

교회는 이번 예배가 장애인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비전 교회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예배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비전 교회 <https://globalvision.church/>

주소 :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전화: 949-667-0264, 문자: 714-393-4595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소낙비는 반드시 멈춥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소낙비가 내립니다. 때로는 고난의 소낙비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소낙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소낙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듯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소낙비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비를 세차게 퍼붓습니다. 소낙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소낙비가 찾아오면 이상한 생각이 우리를 흔들니다.

첫째는 “이 소낙비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평생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소낙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

둘째는 “이 소낙비는 나만 맞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낙비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을 때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화창한 날을 사는데, 나만 소낙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을 남겨 두셨다고 말씀합니다(왕상 19:18). 조금만 살펴보면 고난의 소낙비를 맞고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는 “이 소낙비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제 인생의 소낙비가 찾아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상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낙비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비가 내일의 열매를 자라게 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훗날 풍성한 수확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낙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낙비는 반드시 멈춥니다. 멈추지 않는 소낙비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난의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겔 34:26). 우리는 때로 비를 싫어합니다. 약속이 있는 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이 소낙비는 나만 맞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낙비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을 때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화창한 날을 사는데, 나만 소낙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을 남겨 두셨다고 말씀합니다(왕상 19:18). 조금만 살펴보면 고난의 소낙비를 맞고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는 “이 소낙비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제 인생의 소낙비가 찾아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상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낙비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비가 내일의 열매를 자라게 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훗날 풍성한 수확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낙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낙비는 반드시 멈춥니다. 멈추지 않는 소낙비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난의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겔 34:26). 우리는 때로 비를 싫어합니다. 약속이 있는 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목질이 단단합니다. 적절 한 좌절을 경험한 자녀들이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인생을 보는 안목이 넓습니다. 지혜란 현재의 고통 중에도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 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그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제를 현재에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지금 고난의 소낙비를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낙비는 반드시 멈춥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의 소낙비를 복된 소낙비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의 소낙비가 지난 후에는 풍성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홍수가 멈춘 후 무지개가 주어졌듯이, 십자가의 폭풍이 지난 후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금요일의 십자가 너머 주일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끝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와 은혜의 무지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6.25 사변과 사상(思想)전쟁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어제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사변이 나던 해인 195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76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6.25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6.25라 하는데, 오늘에는 ‘한국전쟁’(Korean War)이라 합니다.

필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때는 전쟁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6.25가 김일성 북한 정권이 남한을 적화통일(赤化統一)하려

고,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의 후원을 받아 일으킨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공산화시키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을 맞이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3일 만에 서울을 내어 주고, 수도를 대전으로, 부산으로 옮기면서, 전전 궁궁하다, 미국의 주선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16개국의 전투병과 6개국의 의료 지원을 받아 3년의 치열한 전쟁이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그쳤습니다.

6.25사변은 한마디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남한의 민주 정부를 무너뜨리고, 남한을 공산화해서 적화통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파멸시키기 위해 6.25가 일어나기 전인 1948년 4월에, 제주도에서 4.3사건을, 1948년 10월에는 여수-순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 공산주의자들은 민주 진영의 경찰, 군인, 공무원들과 가족들, 목사, 장로, 등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4,000년 동안

소위 단일민족, 백의(白衣)민족, 배달겨레로 같은 조상의 피를 나눈 동족(同族)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왕을 반역한 역적들을 모질게 죽이고, 개인적 원한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었지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죽여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기독교와 같이 전도를 해서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상이 다르면 죽인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사상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남한과 화해하고, 같이 잘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남한을 적화시켜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공존(共存)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가 공산화하는데, 가장 거침돌이 되는 존재들로 여기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해방 전, 평양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예배당들이 있었고, 결혼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 전역에 예배당은 단 하나도 없고, 주일도, 예배도, 외경상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몰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조용히 부르다 공안(公安)요원에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총살을 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과로로 죽는 교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회는 결코 공존(共存) 내지 공생(共生) 할 수 없는 이질적 개념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낸 편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고 하신 말씀은, 공산주의자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Th.M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비즈니스가 사명이 되는 시대

건강 · 경제 · 선교를 하나로

1. Teloyouth B.A.M은 비즈니스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 ✓ Teloyouth 핵심 메시지
- ✓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 ✓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36배)
-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복 프로그램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재구매율 91%-지속 가능한 구조
- ✓ 온몸의 세포 기능 · 구조 · 감정까지 회복
- ✓ 100만 명 이상 변화된 글로벌 사례

2.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 ✓ 성도들의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
- ✓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 ✓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플랫폼

B.A.M (Business As Mission)

- 비즈니스가 선교입니다
- 가정이 선교입니다
- 우리의 일터가 선교입니다

Teloyouth는 사역과 비즈니스가 하나 되는 플랫폼입니다

3. 세대별 비전

- ✓ 차세대 (20-30대)
→ 글로벌 창업 & SNS 기반 사역 (Telopet 포함)
- ✓ 중장년 (40-50대)
→ 글로벌 헬스 비즈니스 리더십
- ✓ 시니어 (60+)
→ 건강 회복 + 경제적 은퇴 플랜 + 사역



TELO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초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삶 전체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세우며 세계를 섬기는 리더로 서십시오.

미팅 핵심

- 실제 B.A.M 사역 진행 스토리 공유
- 건강 회복 & 삶의 변화 사례
- 글로벌 확장 비전 발표
- 차세대 리더 세우기 전략

대상

- 목회자 · 사역자
- 크리스천 사업가
- 차세대 창업가 & 리더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펍 디렉터

모임 안내

특강 강사: 폴 김 수석코치

2026년 7월 11일 (토) 오후 1:30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세미나 후 비즈니스 기회 설명회

매주 목 토 오전 9:45 분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약 필수**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목동 칼럼

잠비아에서 만난 하나님의 선교, 비전 50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미라클 LA 교회를 섬기는 필자는 뉴저지에서 공직 일정을 마친 직후 뉴욕을 떠나 케냐 나이로비와 짐바브웨를 거쳐 잠비아 루사카에 도착했다. 30시간을 훌쩍 넘는 긴 여정이었다. 여러 차례의 환승과 장시간 비행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순례의 길이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해외 일정이 아니었다. 필자가 섬기는 미라클 LA 교회가 2003년부터 펼쳐 온 Vision 50 선교운동의 현장을 돌아보고, 현지 동역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선교 여정이었다. 현재 Vision 50 운동에는 18개국, 3,000여 교회, 4,000여 명의 목회자, 그리고 약 12만 명의 성도가 함께하고 있다. 잠비아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의 땅 가운데 하나다.

잠비아는 남부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로, 비교적 안정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나

라다. 특히 헌법에 ‘기독교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 복음과 교육 사역이 확장되는 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여서 세계 GDP 순위에서 111위를 차지하는 형편이었다. 우회 도로도 부족하고, 도로는 군데군데 비포장이요, 신호등이 없기도 하고, 심지어 밤에 가로등도 없는 곳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잠비아에서 경적 소리를 거의 듣지를 못하였다. 가난해도 여유로움과 품위를 유지하는 귀한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 방문한 비전스쿨에서는 우리 선교팀의 EM 멤버들이 앞에서 찬양과 율동, 성경 이야기를 인도했고, 함께 한 우리는 아이들 곁에서 손을 잡아 주고, 게임을 도우며, 간식을 나누어 주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아이들은 하나씩 간식을 받아들었다. 아이들은 허름한 교실 앞, 의자 하나 없는 황무지의 흙바닥에 웅기종기 앉아 친구들과 함께 스낵을 먹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은 참으로 맑았다.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간식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다. 순수한 눈망울로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도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들의 웃음은 풍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교팀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배우게 하신 것이다.

이번 선교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루사카 외곽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드린 예배였다.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있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간 것처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찾으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참 동안의 비포장 도로를 지나 마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무릎 높이의 벽에 창문도, 기둥도, 지붕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다. 성도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였다. 그 어떤 악기도, 음향시설도, 조명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찬양은 그 어떤 대형 성전보다 뜨거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난보다 감사가 있었고, 절망보다 소망이 있었다. 그날 드려졌던 예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예배를 완성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

Vision 50 선교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특히 현지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직접 필사하도록 권면하고, 모든 설교를 완벽한 설교노트를 작성하도록 강조한다. 이는 말씀으로 준비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목회자를 통해 건 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섬기는 것이다. 이번에도 훈련을 마친 후, 성실하게 말씀 필사와 철저한 설교준비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작은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약 70명의 목회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예정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필자에게 영어로 간증을 부탁하는 순서가 주어졌다. 영어가 모국어인 잠비아 목회자들 앞에서 서툰 영어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긴장하며 간증하였다.

즉흥적 간증이기에 필자는 늘 강조하던 제자도(Discipleship)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 선교적 교회를 강조할 때 필자는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이는 가난한 나라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에 마음이 열릴까?라는 우려였다. 그런데 잠비아 목사님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심지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분들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는 듯하였다.

잠비아에서 우리가 본 것은 가난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아이들의 웃음, 성도들의 찬양, 목회자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우리는 단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을 뿐이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니다. 누구나 무릎선교사, 두 손선교사, 온몸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에 지체 없이 나아가는 팔로워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진유철 칼럼

핵심 중의 핵심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발기술을 잘 쓰고 패스도 잘하고 전술과 작전이 훌륭해도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아무나 값없이 받는 선물이기에

영접하면 영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강한 삶,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하신 주님 말씀처럼, 기도하면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원수마귀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열기가 힘듭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몸이 아플 때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제일 입맛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인데 오히려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일상을 고백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나 누구를 만나는 일들에 대해 그냥 보고하듯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외적인 일상에서 마음이

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일상을 고백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나 누구를 만나는 일들에 대해 그냥 보고하듯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외적인 일상에서 마음이

골 없는 축구는 이길 수 없다
기도 없는 신앙도 승리할 수 없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다

의 상태까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들 라이드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와 예배시간이 겹치는데 유혹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전 교인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데, 뭘 해야 할지 처음 가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나오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내게 오신 분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냥 입을 열어 내 형편과 사정을 보혜사 성령님께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말씀을 붙들고 구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차원, 레벨, 수준 클래스가 다른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삶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 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해외이사

- 화외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THIS. IS.

RUACH.

The Voice — Praise Concert

Venue

The Novo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Dates

Sat. 8.01 — 6:30PM
Sun. 8.02 — 6:30PM

Tickets

\$50 & \$60
—
213.357.1565
562.766.9494

Pastors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조셉리 목사

Special guests



소향



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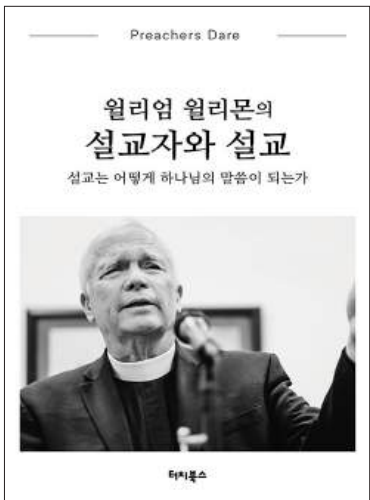
주최 주관 Loving Worship

대표 목사 Joseph Lee

Producer Troy Choi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준 밖에서 들리는 설교학 강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윌리엄 윌리몬의 ‘설교자와 설교’



윌리엄 윌리몬의 설교자와 설교

윌리엄 윌리몬 | 이철민 역
터치북스 | 320쪽

사랑받는 설교자
윌리엄 윌리몬이
설교를 주제로
예일 대학교의 유서깊은
라이먼 비처 강연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명연에서
영감을 받은 저자는,
설교가 진부한
종교적 통념이나
상식을 해설하고
권면하는 정도로
전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독특한 정체성과
절대적 소명을
상기시킨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를 읽은 사람은 윌리엄 윌리몬(William Willimon)의 <설교자와 설교>를 읽고 당혹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설교자에게 설교에 관한 가르침과 본을 보인 두 사람의 설교 철학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다.

윌리몬은 듀크 신학대학원에서 실천학 교수로 가르치며 20년 이상 대학 예배 설교자로 봉사했다.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영어권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12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적도 있고, 정말 많은 영어권 목사들이 그가 제공하는 강단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보수적인 복음주의(또는 개혁주의) 신학을 접한 목사 또는 설교자는 윌리몬의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자주 인용한 바르트나 월터 브루그만도 이름만 들어본 적 있을 뿐, 그들의 신학에 관해선 윌리몬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 비로소 접하게 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윌리몬이 정의하는 성경론과 설교론은, 다른 쪽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이질적이다.

윌리몬이 쓴 책의 원제는 ‘Preachers Dare’인데, 설교자들이 ‘감히’ 도전하는 ‘데우스 디싣트’(Deus Dixit),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도록 설교자들이 겁 없이 시도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바로 이 점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하여 강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조화롭게 정의한 것처럼,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설교자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해돈 로빈슨도 성령께서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하고, 설교자는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된 말씀을 청중에게 담대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윌리몬이 강조하는 ‘데우스 디싣트’는 칼케돈 신조와도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섞이거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에 존재한다고 신조는 말하지만, 윌리몬은 ‘분리’를 강조하는 듯 하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은 거의 찾기 어렵다. 다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결국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청중에게 전달하시고, 경청하도록 청중을 이끄신다는 점을 무척 강조한다.

윌리몬은 소위 ‘귀납적 성경연구’ 또는 문자적-문법적-역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방식을 열렬히 지지하고 수용하는 설교자가 아닐 것 같다. 이 책에 인용된 윌리몬의 설교나 설교에 관한 간증을 볼 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보다는, 청중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적합하도록 전달되는 즉흥적이면서도 신비롭기까지 한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베트남 참전에 반대하고 특정 대통령을 비판하는 설교를 그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여성 설교자나 나아가 성소수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바울이 여성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바울의 실수라고 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듯 하다. 그렇다 해서 윌리몬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성경 본문을 설교하지 말라고 잘못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정의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분명 다른 쪽에서 볼 때 위험하다. 그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규정하거나 틀에 가두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께서 의도하신 뜻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돈 로빈슨, 마틴 로이드 존스, 스캇 듀발, 다니엘 헤이즈 등 강해



©Benjamin Brunner/ Unsplash.com

설교를 가르치는 이들도 설교가 오직 설교자만의 것이 아님을 충분히 강조한다. 존 파이퍼는 설교가 초자연적 사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설교자 중 하나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설교자에게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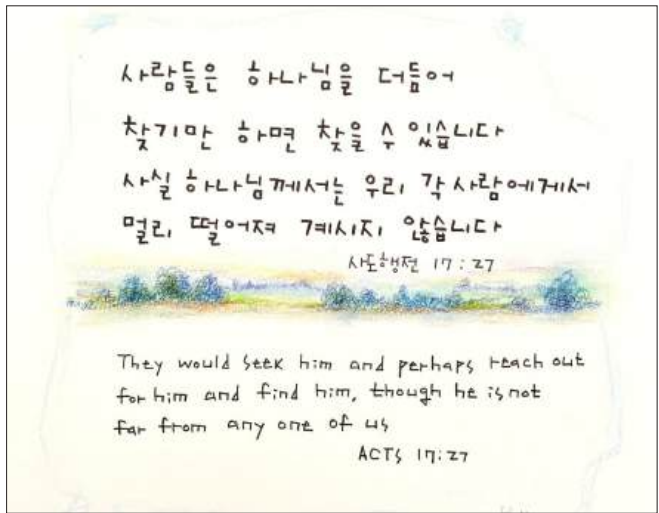
그것이 어떤 규격에 맞추려는 시도처럼 저쪽에서는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의도하신 본문의 의미를 오늘날 청중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달할 때, (물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윌리몬이 볼 땐, 그 확신이 인위적이다. 설교자는 모른다. 그는 하나님이 말하는 당나귀처럼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

런 강조점이 설교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설교자는 어떻게 더 좋은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얻고 싶은 자에게 윌리몬의 <설교자와 설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시리라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에게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게 하는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와 그것에 충성하는 길을 정하지 말라고 권하는 당혹스러운 조언처럼 느껴질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상담받고 최대 40% 절감혜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솔라 공사를
**실제 6만 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 다이어트, 효과는 100% 그대로!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L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wa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맞춤형 설계 & 시공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